

■ 전진농업 현장 13 정동목장대표 김희동 ■



“유가공시설로 신선한 우유 공급이 꿈”

대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천에서의 성공은 전국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 제14회 전국 홀스타인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낙농업계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11월4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지기현에서

연말까지 축산농가는 모두 등록제로 전환된다. 지난 5월30일까지 등록을 마친 포천시 축산농가는 모두 351개 농가다. 이 중에서 80%가 무허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따라서 적절한 법적 조치후 모두 양성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에 검정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여 서울우유, 마흔촌, 포천

와 포천시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천시 실내 홀스타인 품평회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농가에서 5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모금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태생으로 강진농고 축산과를 졸업한 김 대표의 꿈인 목장운영이 이곳 포천에서 이뤄진 것은 군대생활 덕분이다.

김 대표에게는 세 가지 꿈이 있다. 하나는 연수원 운영이다. 지난 200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러시아, 몽고, 중국 등 대학에서 연수생들이 3개월 단위로 연수를 받고 있다. 둘째 꿈은 전국 제일의 우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 꿈도 지난 1997년 착유두수 40두로 이루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꿈은 유가공시설 운영이다. 젖소에서 착유한 우유가 유가공시설을 통해 가공되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것이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는 1남1녀의 자제가 있다. 아들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장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딸은 현재 하버드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선진농업인으로서 우수한 기술은 역시 성실한 노력과 다양한 연구에 있음을 김 대표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전진농업의 부지에 젖소 230두, 한우 101두, 육우거세우 70두 등 4백여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정동목장에서 한우가 먹이를 먹고 있다.(이동면 연곡리)

개최된 일본 전국품평회에 포천시 관내 낙농가 33명과 함께 참가해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특히 일본현황이 참석해 시상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상이 참석하지 않고 현황동생이 참석하여 시상하는 모습을 보고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에도 내년에는 농림부장관상을 유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법이 개정돼 오는

등 홀스타인 검정협회가 있는데 이들 221명이 통합해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김 대표가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이들 221명이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했으며 낙농가는 물론 한우, 양계 등 다른 축산종류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했다.

김 대표는 포천시에 전국에서 는 최초로 실내 홀스타인 품평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서울 강동구청, 고은기업 감사패 전달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전기공사 공로 認定



서울시 강동구 고은기업 감사패를 받기 위해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전기공사에서 (주)고은기업 대표가 신동우 강동구청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주)고은기업(대표 엄정삼)이 서울시 강동구청(구청장 신동우)이 발주한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준공식'에서 공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 강동구청은 지난 10일 강동구 고덕2동 88번지에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준공식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강동구민 및 공사참여업체,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준공

기념식은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는 지난해 4월 14일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 지난 7월 2일 공사 착공해 지난 10일 준공했으며, 청소차고, 재활용선별장 등 1천775㎡ 537평으로 6개동의 시설이 갖춰 있다.

(주)고은기업은 이날 신동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안전한 전기 시공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주)우성건설 등과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엄정삼 대표는 "이번 공사는 (주)고은기업의 성실한 시공과 풍부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룬 공사의인 만큼 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기업 조력자, 서비스 제공자로 경영 효율성 꾀할 것

(주)기업과 사람들



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핵심성장동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관리 용역업체는 단순히 기업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기업의 조력자,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론이다.

정성을 다하는 기업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기업과 사람들(대표 이사: 이명희·사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1001호)은 빌딩 및 아파트 단지에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 단일지휘 체계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며 경비절감 및 최적의 서비스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종합관리 용역업체다.

지난 90년대 말 경제위기 당시 기업구조 조정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아웃소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초기엔 인력파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시설관리, 정보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업들은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활동은 해당기업의 전문기업에 위탁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업무는 경비, 청소, 건물관리, 청소, 소독, 저수조정수, 공동주택관리, 호텔운영, 스키/골프장 운영관리,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근로자 파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용역서비스를 제공하

이명희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 흐름에 부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CEO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지금은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기업,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소외나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실시하고 있어 기업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업으로 국내 종합관리 용역업체의 수준을 업 시키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전화: 02)780-577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제조업을 하던 정리에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기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열려져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

폐업시 최소한 신고는 필수

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출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출자료만 있다면 매출자료금액을 전부 관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

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난다.

■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3) 각종 행정규제를 받는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또는 여

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주)미래종합식품

맛과 영양이 풍부한 족발 가공전문

대표이사 이현구

출할 때 가정에서 손쉽게 인두나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란 아이템을 갖고 훗날 개발하게된 것이 바로 '족발'이었으며 "내가 직접 만드는 음식은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인드로 족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시작 당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맛있는 족발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 바 돈육 특유의 냄새 제거와 족발 특유의 쫄깃쫄깃한 맛을 최대한 살리고 깔끔한 뒷맛을 살리는 족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가정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시작하면서 당시 약 400여 곳의 판매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주)미래종합식품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 것은 이 대표의 맛있는 족발을 만든다는 집념과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유통상의 과정이 함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주)미래종합식품은 패지의 앞 쪽 중에서도 미니 쪽 만을 취급해 생산하고 있다.

돼지 족은 스웨덴 산과 덴마크 산을 전량 수입해서 가공하고 있다. 스웨덴 산이나 덴마크 산은 돼지 족을 생산하는 설비나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고 위생적이며 돼지 족의 질도 으뜸이라고 한다. 수입해온 양질의 돼지 족은 바로 냉동실에 입고 후 주문 양에 따라 10여가지가 넘는 양념

시종일관 고객을 우롱하지 않는 족발생산으로

고객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또한 우리 몸에 증금속을 제거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먹거리로 인정맞춤이다.

(주)미래종합식품(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739-8 대표이사 : 이현구)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족발을 우리 입맛에 맞게 상품화 시켜 우리의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육가공 전문업체다. (주)미래종합식품은 족발업계에서 이룩한 대면 알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타 업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메리트 있는 업체다.

지난 1996년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 소제에 위생적인 생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식품제조업을 가동해 현재 10여 곳 이상의 대리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미래종합식품이 성장하기까지는 이 대표 특유의 집념과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래 전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

과 함께 잘 살고 이 과정에서 족발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한 각종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위생적인 분해작업을 거쳐 적당한 크기로 포장되어 전국에 있는 각 대리점으로 배송 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족발 맛을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결과 위생적인 시설이 요구되는 식품제조업인 만큼 (주)미래종합식품은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이며 맛깔스러운 족발을 생산해 보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시종일관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맛 또한 으뜸을 지향하며 자사 브랜드인 오미 양념족발, 오미 장충족발 생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건강이 좋아야 건강한 회사를 운영한다는 믿음으로 바쁜 와중에도 모닝 캠프 전국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음광메드민턴클럽 소속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문의 전화 031)536-3737, 011)775-330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주)미래종합식품은 족발업계에서 이룩한 대면 알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타 업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메리트 있는 업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지하층 벽체 거푸집 해체작업 중 감전사고

벽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던 파이프 세포트 수평연결재를 밟고 벽체 상부 유로폼 연결판을 제거한 후 파이프 세포트 상부(내판)를 잡고 내려오던 중 수평연결재 상에 걸쳐져 있던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감전재해 예방조치 미실시로 이동전선 사용시 작업전 해당전선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은 절연 조치를 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했고, 전선 접속시 절연테이프 미사용으로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 사무용 청색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철저히 해야하며,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절연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